

## ‘25년 1분기 가계소득 +4.5% 증가

- 실질소득(+2.3%) 4분기 연속 증가, 근로·사업·이전 소득 모두 증가
- 3분기 연속 소득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하며 흑자액 +12.3% 증가

‘25.1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(+3.7%)·사업소득(+3.0%)·이전소득(+7.5%)이 모두 증가하며 총소득이 +4.5% 증가<sup>7분기연속</sup>, 실질소득도 +2.3% 증가<sup>4분기연속</sup>하였다.

- 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
-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
- \*\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41.2<+3.7%> (사업)90.2<+3.0%> (이전)87.9<+7.5%>

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를 제외한 2~5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,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(△7.7%) 및 이전소득(△1.0%)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.

- \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4.5 (1분위)△1.5 (2)1.9 (3)2.9 (4)5.8 (5)5.6
- \* 1분위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0.1 (사업)△7.7 (이전)△1.0 <(공적이전)0.2 (사적이전)△4.1>

가계 소비지출은 주거·수도·광열,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+1.4% 증가하였다.(실질소비지출은 △0.7% 감소) 처분가능소득은 4.5% 증가하며 7분기 연속, 흑자액은 +12.3% 증가하며 4분기 연속으로 증가하였다.

- \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6.32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0.34배p)하였다.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

- \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(1분기, 배): ('21)6.30 ('22)6.20 ('23)6.45 ('24)5.98 ('25)6.32

정부는 가계소득 증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생지원 위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, 일자리 창출·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이진민 (044-215-8570)
		담당자	사무관	이 찬 (lchan644@korea.kr)

1

주요 동향

전체 가구소득

□ (총소득)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.1만원, 전년동기대비 +4.5% 증가

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

○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+2.3% 증가

\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

\*\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3.0 (2/4)2.7 (3/4)2.1 (4/4)1.6 ('25.1/4)2.1

□ (소득항목별)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이전소득 모두 증가

\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41.2<+3.7%> (사업)90.2<+3.0%> (이전)87.9<+7.5%>

○ (근로소득) '25.1분기 임금근로자 증가,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

\*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: ('24.1/4)32.6 (2/4)25.9 (3/4)20.1 (4/4)7.3 ('25.1/4)20.6

\*\* 전체 임금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3 (2/4)3.6 (3/4)3.4 (4/4)3.3 ('25.1~2)5.1

○ (사업소득)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 등으로 평균 사업소득 증가

\* 소매판매액지수<sup>경상</sup> 증감률(전년비, %): ('24.1/4)1.3 (2/4)△0.4 (3/4)0.3 (4/4)△1.2 ('25.1/4)<sup>p</sup>1.7

○ (이전소득) 공적연금, 사회수혜금 중심으로 평균 이전소득 증가

\* '25년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, 육아휴직급여 인상(통상임금의 80 → 80~100%) 등

분위별 소득

□ 1분위 소득 감소, 2~5분위 소득 증가

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전체)4.5 (1분위)△1.5 (2)1.9 (3)2.9 (4)5.8 (5)5.6

○ (1분위) 1분위 중 고령 가구주, 자영자 가구주 비중 축소 영향 등으로 사적이전소득(△4.1%)·사업소득 중심(△7.7%) 감소

\* 1분위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근로)△0.1 (사업)△7.7 (이전)△1.0 <(공적이전)0.2 (사적이전)△4.1>

- (5분위) 취업자수 증가, 임금상승 등 영향으로 근로(+ 4.1%)·사업(+ 11.2%)·이전소득(+ 4.2%) 모두 증가

\* '25.1분기 취업자수 +15.5만명 증가, '25.1~2월 사업체 명목임금 +5.1% 증가

## 지출 · 가계수지

- (비소비지출) 경상조세(+ 14.0%) 증가하며 비소비지출 증가(+ 4.4%)

\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2 (2/4)3.7 (3/4)0.5 (4/4)2.8 ('25.1/4)4.4

\* 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경상조세)+14.0 (비경상조세)△7.4 (이자)△6.9

- (소비지출)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.0만원으로, 주거·수도·광열,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+ 1.4% 증가

\* 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주거수도광열)5.8 (식료품)2.6 (교통)△3.7 (통신)0.0

-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△0.7% 감소

- (가계수지) 총소득 증가로 처분가능소득은 + 4.5%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증가, 흑자액은 + 12.3%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

\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-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\*\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4 (2/4)3.5 (3/4)5.5 (4/4)4.0 ('25.1/4)4.5

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△2.6 (2/4)0.9 (3/4)10.2 (4/4)7.8 ('25.1/4)12.3

## 소득분배

- (5분위배율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6.32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(+ 0.34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\* 5분위배율(배, 1분기): ('19)6.74 ('20)6.89 ('21)6.30 ('22)6.20 ('23)6.45 ('24)5.98 ('25)6.32

- 다만,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## □ [평가] 총소득 7분기 연속, 실질소득 4분기 연속 증가 지속

- '25.1분기 가계 총소득은 7분기 연속 증가, 실질소득은 4분기 연속 증가
  - \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4 (2/4)3.5 (3/4)4.4 (4/4)3.8 ('25.1/4)4.5
  - \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△1.6 (2/4)0.8 (3/4)2.3 (4/4)2.2 ('25.1/4)2.3
-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이전소득 모두 증가
  - \* 항목별 소득(만원): (근로)341.2<+3.7%> (사업)90.2<+3.0%> (이전)87.9<+7.5%>
- 소득증가율(+ 4.5%)이 비소비지출(+ 4.4%)과 소비지출(+ 1.4%)을 상회하며 처분가능소득(+ 4.5%), 흑자액(+ 12.3%) 모두 증가
  - \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1.4 (2/4)3.5 (3/4)5.5 (4/4)4.0 ('25.1/4)4.5
  - \* 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4.1/4)△2.6 (2/4)0.9 (3/4)10.2 (4/4)7.8 ('25.1/4)12.3
-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
  - \* 5분위배율(1분기, 배): ('19)6.74 ('20)6.89 ('21)6.30 ('22)6.20 ('23)6.45 ('24)5.98 ('25)6.32

## □ [대응방향] 민생지원 위한 추경예산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, 양질의 일자리 창출·취약계층 지원 노력 강화
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(약 1.6조원),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(4천억원) 등 민생 지원 위한 추경예산 차질없이 집행
-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(TF) 등을 통해 고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,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뒷받침 지속
- 취약청년·장애인·노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고용·사회안전망 지속 확충
  - \* 노인일자리 확대('24103.0 → '25109.8만개),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(+6.42%) 등